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5점차 분패...2차전서 뒤집는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최강 삼척시청에 17-22로 고배 강경민 7골 분전...31일 2차전서 '기적의 역전우승' 기대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광주도시공사는 29일 광주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삼척시청에 17-22(6-11, 11-11)로 패했다. 1차전 패배로 벼랑에 몰린 광주도시공사는 31일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최종전을 기약하는 처지가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최종 승부에서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이겨야 챔프에 오를 수 있다. 이번 리그는 2차전으로 최종 챔프를 가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1,2차전 결과 승점이 많은 팀이 챔피언에 오른다. 승점이 같을 경우, 골득실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챔프결정 2차전에서 6점차 이상으로 삼척시청을 꺾어야 챔피언에 오를 수 있다. 5골 차로 이기면 7m 승부던지기를 통해 우승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그만큼 부담이 큰 경기를 치르게 됐다. 이날 광주도시공사는 경기 시작부터 5~6점차로 끌려다니다 뚜렷한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6-11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에만 모두 19개의 슈트를 던졌으나 6골(득점성공률 31.6%)로 극심한 골가뭄

에 허덕였다. 삼척시청 골키퍼 박미라에게 슈트 철저히 가로막혔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들어 반전의 기회를 잡기도 했다. 후반 14분께 송혜수의 6m 슈트로 11-14, 3골차까지 따라붙었으나 이후 다시 추가 골을 내주며 승기를 빼앗겼다. 강경민이 이날 7골을 넣었으나 김지현 3골, 원선필 3골 등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이 걸림돌이 됐다. 전통의 강호 삼척시청은 이날 경기에서 노련한 경기가 돋보였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플레이가 위축돼 잦은 실수를 하는 등 시종 고전했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선수들이 큰 경기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한 탓에 실수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삼척시청이 강한 팀이지만 2차전에서 최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경기한다면 좋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정규리그 4위라는 최고 성적을 거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통합 3위에 올랐다. 올해는 창단 이래 최고성적인 정규리그 2위에 오른데 이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SK를 꺾고 챔피언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혜수 '혼신의 슈트' 광주도시공사 송혜수가 29일 광주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삼척시청과 챔피언결정 1차전에서 슈트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여수충무고 김민섭 세계수영선수권 출전권 확보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 점영 200m·개인혼영 400m 우승

'한국수영의 기대주' 김민섭(여수충무고 3년)이 생애 두번째 세계수영선수권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김민섭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김천에서 개최된 'KB금융그룹 Korea Swimming Championships 2022' 대회 점영 200m, 개인혼영 400m 경기에 출전해 각각 1분56초47, 4분18초22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으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점영 200m에서 4번 레인을 배정받은 김민섭은 경기내내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5번 레인의 문승우(전주시청)를 제치고 당당히 1등으로 골인했다. 두 선수는 나란히 FINA A기준기록을 통과해 제19회 부다페스트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출전 티켓을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단일 종목에서 A기준기록을 통과해 두 명을 자력으로 파견하는 건 이번이 최하다. 김민섭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



김민섭(왼쪽)과 안종택 코치. <전남도체육회 제공>

다. 김민섭은 개인혼영 400m에서 6번 레인을 배정받아 7번레인 김민석(국군체육부대)과 치열한 접전 끝에 0.01초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경기가 끝난 뒤 김민섭은 "지난 선발전(2019 수

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점영 1분 58초 12)보다 기록을 단축해 매우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과 경험을 쌓아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당구 쿠드롱 왕중왕전도 석권...PBA판 그랜드슬램

프로당구 PBA 3쿠션 최강자인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이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 쿠드롱은 28일 밤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열린 'SK렌터카 PBA 월드챔피언십 2022' 결승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데이비드 사파타(블루원리조트)를 세트 스코어 5-3으로 꺾었다. 이로써 쿠드롱은 PBA 최초 4연속 우승이자 통

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쿠드롱은 지난해 12월 4차 투어 크라운해태 챔피언십 우승 이후 5차(NH농협카드 챔피언십), 6차(벨기에저축은행 웰빙 챔피언십) 대회에 이어 시즌 왕중왕전 격인 월드챔피언십까지 우승했다. 지난 16일 마무리된 PBA 팀 리그에선 소속팀 웰컴저축은행을 포스트시즌 파이널 우승으로 이

끌었다. 세 번의 PBA 투어와 팀 리그, 마지막 왕중왕전 우승을 전한 시즌에 해내며 PBA판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한 큐에 15점(LPBA 11점)을 연속으로 득점해 세트에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TS삼푸 퍼펙트큐'(상금 2000만원) 강승용이 수상했다. 앞서 끝난 여자부 결승전에선 '당구 여제' 김가영(신한금융투자)이 스롱 피아비(블루원리조트)를 세트 스코어 4-1로 제압하며 우승했다. /연합뉴스

마지막 '호수의 여인'은 누구?

시즌 첫 메이저 세브런 챔피언십 4월 1일 개막...고진영 우승 1순위

스폰서 바뀌며 내년엔 장소 옮겨

미국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는 1983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 다이나 쇼어 코스(파72)에서 열렸다. 대회 이름은 나비스코 다이나 쇼어, 나비스코 챔피언십,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ANA 인스피레이션 등으로 변화했지만 대회 장소는 그대로였다. 올해는 대회 명칭이 세브런 챔피언십으로 바뀌었다. 겨울 휴양지 코렐라 밸리에 자리 잡은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 다이나 쇼어 코스 18번 홀 그린 옆에는 '포피의 연못'이 있다. 이 대회 우승자는 시상식 직전에 경기복을 입은 채 '포피의 연못'에 뛰어든다. 1994년부터 정례화됐으니 28년 동안 이어지는 전통이다. 그러나 '포피의 연못'에 뛰어든 전통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새로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세브런은 대회 장소를 내년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4월 1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 다이나 쇼어 코스에서 열리는 올해 대회 챔피언이 '포피의 연못'에 몸을 던지는 마지막 우승자가 된다. 메이저대회답게 총상금 500만 달러에 우승 상금이 75만 달러에 이르는 이 대회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여자 골프 최강자 고진영(27)이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34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에 말해주듯 경기력이 최절정이다. 고진영은 작년 9월부터 참가한 9개 대회에서 모조리 6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무려 5번 우승했다. 고진영은 LPGA투어에 입성한 뒤 세 번 출전해 두 번 톱10에 들었고, 2019년에는 우승해 호수에 뛰어드는 즐거움을 누렸다.



고진영

고진영은 "다시 한번 호수에 뛰어든다고 싶다"며 이 대회 우승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 코스를 좋아하는 박인비(34)도 마지막 '호수의 여인'에 눈독을 들인다. 2013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박인비는 올해 '메이저대회 우승을 더 하고 싶다'고 투지를 밝힌 바 있다. 김효주(27)와 부활 조짐을 보이는 전인지(28)와 이정은(25)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뒤살아난 천재 소녀 리디아 고(뉴질랜드), 다니엘 강(미국), 이민지(호주) 등 교포 선수들도 우승 가능성이 높다. 디펜딩 챔피언 페티 타와타나깃과 JTBC를 레식에서 첫 우승을 따낸 아야야 티피쿤을 앞세운 태국 선수들의 돌풍도 경계 대상이다. 신인왕 경쟁에서 티피쿤에 한발 뒤처진 최혜진(23)과 안나린(26)의 반격도 주목된다.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다(미국)는 혈전증 때문에 이번 대회에 결장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모비우스
- 2관 모비우스
- 3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4관 모비우스
- 5관 배니싱: 미제사건
- 6관 모비우스
- 9관 뜨거운 피
- 7관 씨네카를 뜨거운 피, 극장판 주술회전 0
- 8관 씨네카를 더 배트맨, 문풀, 드라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2022.04.02.(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2022.04.27.(수)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